

# 주거복지 앞장서는 ‘서민의 벗’



## 저소득층 870호 에너지효율화사업도 추진

광주도시공사가 노경수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 취임 이후 ‘광주다운 도시재생, 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을 도시공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한 노경수시장은 이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단과 주거복지처를 신설, 광주 도시공사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자리 주택 288세대와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행복주택 700세대 및 전세임대 80호를 신규 공급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한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작년보다 42%가 늘어난 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사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 4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주택 870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예산으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창호 및 보일러교체, 단열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약 24%의 에너지효율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외부기관의 예산을 유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 주관한 마을 공동체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7개단지에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장기간 비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청년들에게 제공, 마을 공동체 복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재생사업도 전국 최초로 실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문제 및 고립화된 입주주민의 공동체 문제를 ‘청년 주거’와 연계해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광주 상무지구 광주도시공사 사옥.

이와 함께 도시재생분야에서는 남구 백운광장 일대가 공공기관 관련 방식의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등 도시공사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문공기업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노경수 시장은 “앞으로 도시공사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면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서민의 벗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에너지복지’ 힘쓸 것”

###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지난 2006년 ‘에너지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에너지재단이 출범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무슨 일을 해왔나.”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충을 목표로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등 에너지 공·사기업 16개사가 출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약 45만 저소득층 임대 거주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해왔다. 또, 2012년부터는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하는 등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복지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은. ▲에너지 복지는 공급형(난방연료·난방직접지원)과 효율형(에너지기·설비·주택효율 개선) 그리고 전환형(태양광·미니풍력발전기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적용)의 세가지 나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시대에는 기존의 공급형, 효율형과 더불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권 강화 등의 국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가 필요하다.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협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어떤 게 있나.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낙후한 지역의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택보수 등에 국한되어 가시적인 효과만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과 기능성 측면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재단과 도시공사의 협력이 이뤄지면 지역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객관성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의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높여준다”

##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일인자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을 지냈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도 참여해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광주시 도시재생위원장으로 도시재생 정책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광주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한계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도시 공동체 복원은 주거복지의 기초이자 마지막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노 사장의 발언은 광주도시공사의 지향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음은 노경수 시장과 일문일답. -도시공사의 미션과 비전이 새롭게 발표됐다. 간단히 소개해 달라.

▲산업화시대의 도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빚어낸 주거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다. 도시외곽 개발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도시공사는 이러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탄생한 공기업인만큼 필연적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상무지구 등 수많은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건설 등으로 이러한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산업화가 완료된 지금은 도시의 외형확장보다 기존에 개발된 도시의 재생을 통한 기능회복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도시공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동안의 개발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공사의 새로운 미션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광주 건설’이다. 도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 한다는 설립근거를 반영하여 기관이 존재하는 가치 및 사명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비전은 ‘광주다운 도시재생, 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으로 정했다.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광주다운 특성을 살려 추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공사 혁신계획과 함께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공사가 설정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전문 공기업으로 도약,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공간 창조,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 등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또,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할 목표를 계량화했다. 이를 비전과 목표를 모든 직원 공모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기에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복지란 무엇이고, 도시공사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산업화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했기에 주택은 물량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물량 보다는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 80년에 10.1㎡에서 2016년 33.2㎡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이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실태를 볼 때 1인가구와 60세이상 노인가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입주조건이 젊은 세대와 어울려진 단지가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만 거주하



는 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구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실이 일종의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낙인효과까지 더해져 단지의 활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인 것이 사실이다.

문제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포용적 사회다. 이를 주택단지에 적용해 보면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려 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단지 내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가와 사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단지 내 주민들이 패배의식을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 복원사업은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사업도 이와 맥을 같이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먼저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량은 6.3%로 OECD 평균 8%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광주의 장기임대주택 재고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그간의 공급저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하겠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우리 광주의 도시재생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나.

▲지금까지 광주는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증가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해 시가지 외곽에 신도시 및 아파트단지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요구 증대, 도시브랜드에 대한 경쟁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의 문화적 재생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광주의 도시재생 방향은 원도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선동력 및 일자리창출, 광주정신이 살아 숨쉬는 광주공동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리고 이같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확대, 민관참여와 실천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행정부서간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전남대 대학타운형 등에 단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정부 주요정책인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남구 백운광장 뉴딜사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남구청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발굴, 자치구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 이리오나라, 먹고 놀자

## 개장일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5시 남원 공설시장내 (남원시 의총로 51)

Namwon Wallmae Night Market

남원시 남원순향골공설시장